

인사말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5일부터 “2016디아코니아코리아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6디아코니아코리아엑스포 가정/여성 디아코니아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참석하고 계시는 분과는 “가정/여성디아코니아세미나”로서 그동안 다양한 분과가 세미나를 진행하였지만 어느 분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분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창세기 2 : 22~25), 생명의 출산과 보호처(창세기 1 : 22), 자녀 양육의 터전(신명기 6 : 6~9), 사회의 기본 단위(여호수아 13 : 15~31), 사랑의 보금자리(에스더 1 : 20,22), 신앙교육의 터전(신명기 4 : 9), (잠언 22 : 6), 기쁨과 안식의 처소 (시편 : 128 : 3), 노년의 의지처(디모데전서 5 : 8) 등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환경 및 제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분과는 「양성평등과 가족/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염영옥교수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고 양혜원 교수님(충신대 사회복지학과)과 정혜원교수님(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께서 지정토론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해달 장로님(온누리교회)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시고 전미애 교수님(충신대 사회복지학과)과 김희수교수님(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께서 지정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시피 가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양성이 합하여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위로 형성된 것입니다. 가족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인 가정 또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벗어나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변화 못지않게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여 가정을 세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돌아보고 교회가 가정을 위해 보다 나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날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함께 방법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가정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여성분과 준비위원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혜원**

일정표

시간	순서	내용
16:00~16:05	기도 및 인사	김만준 목사(덕수교회)
16:05~16:10	인사말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10~16:40	주제발표	“가족/여성 영역의 기독교사회봉사에 대한 실천적 고찰” - 염영옥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40~17:00	토론	정혜원 교수(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양혜원 교수(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00~17:30	사례발표	“아버지학교와 여성” - 이해달 장로(온누리교회 아버지학교)
17:30~17:50	토론	전미애 교수(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수 교수(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50~18:00	질의응답	

목차

학술발표(주제)	
“가족/여성 영역의 기독교사회봉사에 대한 실천적 고찰” - 염영옥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토론	
정혜원 교수(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26
양혜원 교수(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2
학술발표(사례)	
“아버지학교와 여성” - 이해달 장로(온누리교회 아버지학교)	37
토론	
전미애 교수(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9
김희수 교수(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2
질의응답	

가족/여성 영역의 기독교사회봉사에 대한 실천적 고찰

염영옥(백석대 사회복지학과)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의 고찰
- III. 가족/여성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 1) 가족/여성에 대한 보편적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 2) 가족/여성에 대한 선별적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 IV. 나오는 말
- V.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가족구조와 가치관에서 많은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불안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제시할 것을 법국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의 주요 구성원인 여성에 대한 변화는 기존의 가부장제, 남성 이데올로기의 변화, 21세기의 불확실성의 증대, 특히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 미래사회에 대한 고찰, 수평적 코디네이터 등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¹⁾ 즉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족 및 여성의 현실은 가족복지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학술 및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가족의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가족에서의 양적·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족유형의 다양화, 가족의 소규모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한부모가족과 국제결혼 가족 등이 등장하면서 가족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통한 학제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1)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성보연·김수완 공저,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전망』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16쪽.

더구나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여성 사회복지대상자를 살펴보면 구사회적위험 대상자인 빈곤, 실직, 장애, 질병, 노령 등이 부실한 사회구조로 인한 가족/여성사회복지대상자와 신사회적위험인 지식기반 사회에서 노인가족돌봄, 장애가족 및 자녀 돌봄 등과 가사와 직장 일을 동시에 병행하여 이중부담이 되는 사회적 및 개인적인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여성 사회복지 접근 중에서 기독교사회복지적인 고찰은 시대적인 요청과 맞물리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가족/여성 사회복지운동의 하나인 디아코니아는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기독교의 운동으로 여겨진다.

디아코니아란 교회가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 기독교의 고유성으로부터 나오는 전문성으로 교회와 신앙인이 진정한 예수제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상처를 싸매고, 갈라진 틈을 메우며, 사회공동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운동이다.²⁾ 이 운동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인간봉사(human services)이다.³⁾

디아코니아는 인간의 물리적 욕구에서부터, 나아가 사회적, 정신적 욕구에 반응하며 궁극적으로 전인적인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하며, 그 활동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다.⁴⁾ 디아코니아는 교회 내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신약성경에 나타난 섬김, 봉사 또는 일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섬김과 봉사로 공동체를 형성시켜주는 디아코니아는 분열을 극복하는 하나의 통합적 실천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형의 약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로 소생케 되고, 하나님과 화해로 의인이 된 인간 - 가정/여성- 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이며 온전한 인간으로 나타난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동등하게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에 기초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교회가 가족/여성과 함께하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여 가족/여성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기독교사회복지 관점으로 개입하고자 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발표는 기존의 연구문헌으로 구성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립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가정/여성 복지에서 디아코니아 교회공동체에 기초한 실천으로 한국교회가 진정한 예수제자 공동체로 다가서는 계기로 기대하여 본다. 나아가서 가정/여성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디아코니아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다양한 대상자를 현 디아코니아적인 접근으로 접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2) Cox, H. The Secular City (N.Y.: Macmillan, 1966).

3) 김동배, 『기독교 사회봉사의 비판적 고찰: 그 한계성과 가능성』 (서울:연세사회복지연구 제1권 1993), 93-118쪽. 사회봉사의 비판4) 윤성호,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과 과제』 (부산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학술대회 지역사회 겨울호 2008), 68쪽.

4) 윤성호,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과 과제』 (부산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학술대회 지역사회 겨울호 2008), 68쪽.

5) 김옥순, 『디아코니아신학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과 실천 Vol.42 No. 2014).

II.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의 고찰

1) 디아코니아(기독교 사회봉사)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봉사의 개념은 자원봉사(volunteer)의 개념을 포함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사회봉사는 ‘자원봉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⁶⁾ 그러나 ‘자원봉사’가 개인의 자발성을 근거로 하여 실천되어지는 활동이라면, ‘사회봉사’는 자원봉사의 개념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주체가 되어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그리고 국제적인 영역에서 실천되어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충족해 주는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⁷⁾

본 연구에서 다루는 디아코니아(사회봉사)의 개념은 교회의 사회봉사로써, ‘교회 사회봉사’라는 개념은 1992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수교장로회(통합) 사회봉사 총람 편찬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신학자, 목회자, 사회복지학자 19명이 모여 기독교의 사회복지 관련활동을 지칭하는 용어의 통일을 위한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용어이다.⁸⁾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돕는 행위 또는 섬기는 행위이며⁹⁾ 또한 인간의 상호작용적 행위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되어지는 인간과 집단의 활동이다.¹⁰⁾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의 정신은 ‘봉사’(diakonea)는 ‘사회사업’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Heilen)이며,¹¹⁾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자선을 베푸는 차원이 아닌, 바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여기에 교회의 사회봉사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성경적 표현으로 봉사, 선행, 구제, 섬김, 돌봄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봉사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방·통제·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적 또는 사적인 각종 서비스 제공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며¹²⁾ 더 이상 선택이 아니며 교회가 봉사를 하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다.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이며 인류 사회의 본질이다.¹³⁾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과제에 대해 김만철¹⁴⁾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자신만을 위한 존립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라, 세계를 섬기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독교 신

6) 강철희 외, 『사회봉사의 이해』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11쪽.

7) 이상안, 『현대사회봉사론』 (서울:전영사 2003), 21쪽.

8) 김동배, 『기독교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 (서울: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05), 7쪽; 그 자리에서 ‘사회선교’, ‘기독교 사회복지’, ‘사랑의 실천운동’, ‘교회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교회 내의 봉사활동과 구분하면서, 또 사회복지라는 용어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부족을 고려하여 기독교인들이 친근감을 느끼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교회 사회봉사’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9)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삼성출판사 1991), 110쪽

10) 이상안, 『현대사회봉사론』 (서울:전영사 2003), 2-19쪽.

11) 이상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한울 1992), 24쪽.

12) 김윤홍, 『기독교 사회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공란출판사 2011).

13) 이재서, 『기독교의 이웃 사랑과 그 실천 신학적 의미』 (서울:신학지남 제69권 1집, 통권 제270호, 2002년 봄호), 318-324쪽.

14) 김만철, 『교회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창지사 2010), 94쪽.

앙을 통한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는 상호적 관계로 신앙은 사회봉사에 동기, 추진력, 방향 목적을 갖게 한다.¹⁵⁾ 곧 신앙의 성숙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에서 사회봉사의 실천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경직¹⁶⁾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실천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교회 공동체가 각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과 역할을 제공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개인마다 다른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교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해야 함”을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돕는 행위 또는 섬기는 행위로 보고자 한다.

2) 디아코니아(기독교 사회봉사)의 성경신학적 이해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의 정립에 있어서 여러 교회들은 교회의 사회봉사학(Diakonik)라는 관점에서 봉사신학을 정립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신학적 용어는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그의 정신을 따라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독교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¹⁷⁾

현대 기독교 용어에서 봉사의 단어군(群)은(diakon 어근을 가진 단어) ‘목자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곤고한 사람을 돌봄을 나타내는 용어로 둘 다 사용 된다. 고대 용법에선 또한 디아콘(diakon) 어근을 갖는 단어는 할 일을 수행하는 것에 적용하였는데, 지시를 내리는 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¹⁸⁾

Paul Philippi¹⁹⁾는 교회의 사회봉사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봉사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된 현재의 하나님 통치가 그의 교회를 자신의 영향권 내로 끌어드리며, 그 영향권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부응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는 생활형태 및 작용형태로 유도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Arnd Hollweg²⁰⁾도 교회의 봉사는 사회적 참여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에 대한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된다고 신학적 입장을 밝혔다.

Moltmann²¹⁾에 의하면 예수의 선교행위에는 항상 복음의 전파와 함께 봉사적 행위와 구원이 있으며, 곧 예수의 선교는 곧 전체적인 구원의 행위(ganzes Wirken des Heils)라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의 사회봉사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의 주된 가르침도 봉사에 대한 교훈이었다. 또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실천을 봉사(diakonia)라는 말로 일반화시켜 표현했다.²²⁾

15) 김국환, 『신앙에 관한 편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6) 이경직, 『개혁주의생명신학과 목회 윤리』 (서울:생명과 말씀 5 2012), 81-113쪽.

17) 박중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19쪽.

18) John N. Collins, 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Oxford: University Press, 1990), 133-149쪽.

19) Paul Philippi, Christozentrische Diakonie. Stuttgart, 황금봉 역,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봉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49-50쪽.

20) Arnd Hollweg: Diakonie und Caritas, In : Ferdinand Klostermann Hrsg., Praktische Theologie heute, München/Mainz, 1974, S. 500-511쪽.

21) Jürgen Moltmann, Diakonie im Horizont des Reiches Gottes, Neukirchen, 1989, S.25.

22) Reinhard Turre, Diakonia, Neukirchener, 이삼열 역,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12쪽. 참고 막 10:4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III. 가족/여성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1) 가족/여성에 대한 보편적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가족/여성복지에 대한 보편적인 고찰의 대상자는 모든 가족/여성대상자를 의미한다. 우선은 교회에서 보편적인 대상자인 중년 일반 여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폭넓게 제공해주며 지속적인 돌봄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년여성들은 교회에서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은 중년여성들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연구가 되었다.²³⁾

박노권²⁴⁾은 교회의 중년기 가족/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공허감, 허탈감, 우울감,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무의미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섭섭한 마음 등이 교회활동 즉 디아코니아 활동 및 참여를 가족단위로 활발하게 유지되고, 이러한 가족단위의 디아코니아 활동을 통하여 가족원간의 갈등이 극복되며, 가족 구성원간의 애정이나 응집력도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디아코니아 활동 및 자발적 클럽 참여도와 여가활동 참여도 등 중년기 교회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요인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아코니아 활동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김경진²⁵⁾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가족/여성과 신앙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건강한 부부관계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디아코니아 활동을 꼽고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신앙은 부부관계, 시댁어른들로 인한 관계가 힘들었을 때 희망을 가지고 그 시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자원중 하나로 디아코니아 활동을 꼽고 있다.

정진오²⁶⁾는 중년기 가족/여성의 신앙성숙이 높을수록 봉사성숙, 관계성숙, 영성성숙의 지수가 높아져서 부부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또한 종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신앙성숙도와 부부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말하였고, 이는 중년기에 종교활동과 신앙성숙도는 중년기 일반여성의 삶에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

김수정²⁷⁾은 종교적 신앙성숙도와 가족/여성의 부부관계만족이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교인들의 사회 심리적 접근을 통해 부부관계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교인들의 삶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조혜정²⁸⁾은 중년기 가족/여성의 신앙성숙이 부부 적응에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는 중년여성의 신앙성숙이 가족에 대한 섬김이나 돌봄, 관심이나 배려로 표현되며 더 나아가서 예배와 섬기는 삶을 통한 신앙성숙이 부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금자²⁹⁾는 P시에 거주하는 40~59세 사이의 특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년여성 190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삶의 의미는 평균 30.31로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

23) 김경희, 『크리스천 중년여성의 성숙성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18-222쪽.

24) 박노권, 『중년여성의 위기와 신앙의 역할』 (서울:신학과 현장 2011 제21집), 101-124쪽.

25) 김경진,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71-73쪽.

26) 정진오, 『중년기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가 부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벤처정보대학 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44쪽.

27) 김수정, 『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 및 부부관계만족도가 종교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신학과 목회 제31집 2009), 413-439쪽.

28) 조혜정, 『기독교 중년 여성의 신앙성숙이 삶의 질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교육정보제32집 2012), 97-122쪽.

29) 박금자,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영향요인』 (서울: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2002), 232-243쪽.

도도 중간정도 나타났다. 대상자의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관계중심이 강하고, 중년여성들의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은 보편화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교를 가진 군보다 기독교를 가진 군이 삶의 의미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의 존재의미나 삶의 의미에 대해 기독교가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루이스(Lewis)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어린 시절 또는 청년기에서 상처나 상실이 있었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자기 가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자기애적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년여성들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의 여러 디아코니아 모임을 통하여 정서적 지지는 물론, 사회적 접촉을 통한 폭넓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과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중년여성들에게 필요한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호³⁰⁾는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와 가족건강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 경험이 가족의 건강성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향상, 가족 간 대화 증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봉사의 기회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사회봉사활동이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생각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 90.1%를 차지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기독교 신앙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영미³¹⁾의 연구에서는 교회의 직분자(장로, 권사, 집사)를 대상으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전도, 예배, 교육, 친교, 사회봉사' 중 사회봉사 사명의식이 차지하는 순위가 3순위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의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교회에서의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교회에서 중년기 일반 가정/여성들의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가 이들의 삶과 가정의 만족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가정/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교회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도록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족/여성에 대한 선별적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가족/여성복지의 선별적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는 많이 있지만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피해여성,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30) 이창호, 『교회에서의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3-44쪽.

31) 이영미, 『교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 참여도 영향 요인 분석』 49쪽.

가.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1)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이해

성폭력의 피해는 단 한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회부적응의 후유증을 안겨 주며, 성폭력피해여성들은 성폭력의 피해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즉 신체적·정서적·사회적·성적영역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 성폭력의 피해를 가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증상은 정서적 후유증과 결부되어 나타나며 단기간 혹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성폭력의 피해로 인해 나타나는 성폭력피해여성들의 정서적 후유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³²⁾라고 한다. 성폭력피해여성들은 성폭력의 피해로 인해 불안감·우울증·분노감·수치심·죄책감·해리·자아존중감 상실 등을 가지고 있다. 정서적 후유증은 성폭력피해여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폭력피해여성들은 성폭력의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주변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에서 은폐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2)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고찰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적인 실천적인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피해로 인해 성적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올바른 성이해를 가르쳐 성적가치관을 정립시켜주고자 한다. 둘째, 성경에서의 성(性) 이해를 시켜주어야 한다. 성(性)은 혼인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지극히 만족하셨으며(창세기 1장 28절 말씀), 남성과 여성의 성적결합의 목적은 자손 번식에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³³⁾ 셋째, 성폭력피해여성에게 가진 피해상황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었으며, 개인의 자유를 착취당하였고, 희망을 상실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하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기독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대응은 아래와 같다.

① 성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실태³⁴⁾

성폭력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심리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기독교센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하여 일반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성폭력 가해자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타 기관 및 시설입소연계 등을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성교육 교사 및 부모 교육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성폭력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게

3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로 PTSD는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대한 공포감이 사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경험을 통하여 스스로가 고통을 받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여러가지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이수경,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소명의식의 영향』(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3), 12-14쪽.

33) K. H. Peschke, 김창훈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서울:분도출판사 1992), 374쪽.

34) 김선희,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독교 상담: 폴링(James N. Poling)의 이론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9), 186-187쪽.

하며, 성력피해여성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즉 생명교육, 자녀성교육, 가정성화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도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며 진정한 구원을 얻도록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돕도록 한다.

② 성폭력피해여성들에 대한 기독교의 전문인재육성

성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성폭력전문지식을 갖춘 영성과 지식을 갖춘 디아코니아적인 신앙의식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도사와 목사들과 일반 교인들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기법과 방법 등을 습득하고 올바른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적 지원 역시 필요한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사회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성폭력상담전문 인력에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³⁵⁾

③ 디아코니아 통합적인센터설립

성폭력피해여성들의 기독교에서 도우미에 있어서 디아코니아 통합센터 설립은 필수적이다.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은 상담에서부터 치료, 법률상담, 의료혜택의 총체적인 지원을 원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차원의 디아코니아 통합적인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에게 교회봉사전문가들의 개입이 요구된다.

나.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성서적 이해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³⁶⁾ 기독교 가정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기독교 가정은 사회제도로써의 한 단위가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로써의 한 단위라고 표현한다.³⁷⁾

그러나 가정도 남편과 시부모 관계, 고통스러운 결혼생활과 실업과 파산,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 좌절 등에 의한 속상함 등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우울과 무기력을 보여주며,³⁸⁾ 심한 가정폭력피해여성은 심각한 자살충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은 슬프고 우울한 기분과 침체된 불행한 수렁에 빠진 듯한 혹은 공허한 느낌을 가지며 흥미의 상실과 주의 집중 곤란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며 죄책감이 심하고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였다.³⁹⁾ 또한 가정폭력은 하나님

35) 이충범, 『성폭력 생존자의 치유와 인격회복을 위한 목회』(서울: 인격교육 2014. V.8. No.3), 151 - 169쪽.

36) 정경숙, 『성경속의가정』(서울:베다니 2004), 7쪽.

37) 설은주, 『가정사역론』(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1977), 45-46쪽.

38) 김경신·김경란, 『가정폭력 세대 전이가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2002), 79-98쪽.

39) 오성춘, 『목회상담과 상담목회』(서울: 쿤란출판사 2003), 129-130쪽.

의 창조질서를 해치는 일이며, 성경은 가정폭력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부가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공동체임을 제시하고 있다.⁴⁰⁾

(2)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가정폭력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를 어기는 행위이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내면에 쌓인 억울함과 분노로 답답함 속에 갇혀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것은 곧 내면의 상처도 함께 치유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⁴¹⁾ 또한 성경공부를 통한 치유사역으로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모든 것과 관계를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죽음파탄에 이르는 가정의 문제들을 말씀의 권위로 해결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존스는 말한다.

홍인중⁴²⁾은 교회가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아코니아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전문가들에 의하여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고, 가정폭력 희생자들에게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에게 도전하며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정폭력 가해 남성의 가계도에서 물려받은 폭력의 반복된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아닌 여러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무열⁴³⁾은 가정폭력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자녀 폭력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자녀폭력은 또 폭력적인 자녀를 양산하며, 신체적 심리적 문제점을 수반하면서 수동적이며 낮은 자존심과 가치관의 상실로서 결국은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과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는데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에 기독교인 가정폭력 대처 방안으로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목회자 인식 개선 및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적 치유를 위해 소그룹을 운영해 나가는 성경공부를 인도하려면 지도자는 반드시 자신과 구성원과 진행되는 내용과 기대하는 목표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치유를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즉 일대일로 할 수 있고 몇 사람이 그룹을 만들거나 동료들이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서로 서로 기도할 수 있으며 설교와 찬양을 병행하므로 할 수 있다.⁴⁴⁾ 그리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디아코니아 모임에 참석하여 이들과 영적인 교류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다. 맞벌이 가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1) 맞벌이 가족의 이해

20세기 후반 산업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업가치관이 변화하였으

40) MacHaffie, Barbara J. 손승희 역, 『기독교 전통속의 여성』(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5), 20-23.

41) 우형천, 『찬양을 통한 내적치유』(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0쪽.

42) 홍인중, 『가정(아내)폭력과 목회자의 역할』(서울: 장신논단.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5, 1999), 88-98쪽.

43) 최무열, 『기독교인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부산: 장신논총. 부산장로회신학교 출판부, 2004), 67-76쪽.

44) 김영근, 『글쓰기 고백을 활용한 내적 치유 상담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검증』(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5-50쪽.

며 출산율이 낮아져 자녀양육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맞벌이 가구는 전체가구의 약1/3을 차지하여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유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1세기가 “여성의 세기”인 점을 감안할 때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족은 기존의 확대가족이나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지만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므로 가족의 기능 면에서는 새로운 가족형태라고 볼 수 있다.⁴⁵⁾

따라서 맞벌이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역할 구조로부터 새로운 역할구조로의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맞벌이 가족은 역할구조의 조정 및 적용에 관한 표준화된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부부간의 갈등이 많고, 가정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페미니즘이나 gender에 대한 부부간의 역할 공유, 동등한 의사결정, 즉 부부간의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⁴⁶⁾ 즉 부부간의 공평성 등에 대한 논의가 기독교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⁴⁷⁾

(2) 맞벌이 가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맞벌이 부인은 역할 확대에 의해 부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즉 부부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역할들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gender 이데올로기의 계속되는 변화와 함께 맞벌이부인의 의사결정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에서 부부평등 관계에 대한 전문 강연을 실시하여 공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예를 제공해야 하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되는 맞벌이부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관련 교양 강좌를 실시해야 한다.⁴⁸⁾

특히 맞벌이 가족은 배우자 출산, 휴가, 유아휴직등과 맞물려 있으므로 부모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맞벌이 가족의 출산, 휴가, 유아휴직, 부모교육등과 맞물려서 통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의 성경적 부모교실프로그램’, ‘마더와이즈 코리아의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영락교회의 유니게 부모교육 프로그램’, ‘두란노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첫째,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의 성경적 부모교실프로그램(Biblical Parenting School)’은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에서 여러 해 동안 해 오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둘째, ‘마더와이즈 코리아의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은 어머니를 위한 사역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머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훈련시키고, 자녀양육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어머니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로서 성경적 어머니상과 어머니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영락교회의 유니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딤후1:5)라는 교육 표어 아래 24개월~48개월 된 유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아 및 부모교육프로그램이다. 넷째, ‘두란노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산업화 현상이 나타나면

45) 강기연,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 사무직-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2-15쪽.

46) Wesson, L. Relative income, power, perceived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career families(role shari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D. 1996.

47) Holcomb, B. Not guilty!:The good news about working mothers. New York, NY. 1998.

48) 강기연,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 사무직-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02-110쪽.

48) 박희정, 『기독교 유아부모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14-22쪽.

서 도시 집중화현상 및 일 중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가정은 경제 중심현상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가장인 아버지를 가정에서 불러내어 아버지의 마음에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하고, 가정에서도 또한 늘 일로 바쁜 아버지의 자리가 적어졌다. 가장인 아버지가 일 문화에 젖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술과 성문화의 문란한 현상으로 인하여 가정의 위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자 두란노서원에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다.⁴⁹⁾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전문적인 생애별 맞벌이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1) 한부모 가족의 이해

한부모가족이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 및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관계는 제외)로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가족’은 ‘편부모가족’으로 불리었으며, ‘편부모가족’의 ‘편’은 조각이나 한쪽이란 뜻으로 편부모가족의 명칭은 완전하지 못하며 ‘결손’과 ‘부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편부모가족’ 대신 ‘온전하면서 하나이다’라는 의미의 ‘한부모가정’으로 용어가 대체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는 ‘한부모가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관련하여 Trost⁵⁰⁾는 부모집단의 혼인여부(결혼/동거)나, 혼인상태(사별/이혼/별거/유기)에 따른 분류 및 아동에 대한 보호를 누가 맡고 있는냐를 기준으로 한 모자가족/부자가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는 한부모가족의 발생 원인을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는 아이의 양육을 부나 모 중 누가 하는가에 따라 부자가족과 모자가족으로 구분한다. 자발성과 일시성에 의한 분류는 자발적이고 일시적 유형, 자발적 장기적 유형, 비자발적 일시적 유형, 비자발적 장기적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발적 일시적 유형은 재혼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혼을 할 의사가 있지만 지금은 재혼을 미루고 있으며, 자발적 장기적 유형은 주변 상황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한부모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이며, 비자발적 일시적 유형은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 탐색을 하고 있고, 비자발적 장기적 유형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부모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이다.

49) 박희정, 『기독교 유아부모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14-22쪽.

50) Trost, J., “The concept of one parent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1(1), 1980.

과거에는 자발적 장기적 유형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자발적 일시적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한부모 가족의 유형에서도 전통적인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유형보다는 이혼 및 별거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또는 미혼모의 발생 및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비정형적 가족 유형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⁵¹⁾

(2) 한부모 가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교회가 부모가족만을 강조하면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혼합가족, 미혼모가족 등은 열등감 및 소외감을 갖게 되고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교회에서 설 곳을 잃고 만다. 목회적 돌봄과 디아코니아 상담, 치유, 회복사역은 그 대상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가족치료학자 Mark A. Yarhouse와 James N. Sells⁵²⁾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교회가 이들에게 성경적 돌봄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디아코니아 상담의 사명이라고 피력했다. Patton과 Childs⁵³⁾는 교회는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 분석을 기초로 디아코니아 상담적 지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한부모가족에 대한 배려는 과부에 대한 배려이며(출 22:22).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강연정⁵⁴⁾은 일곱 가지 ① 아버지/어머니 고유의 자리를 포기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움 ② 경제적화 또는 사회화의 어려움 ③ 가족불화, 갈등으로 인한 가족 내 적응 및 가족관계 형성의 어려움 ④ 사회적, 정서적 교류능력, 성격형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⑤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및 학습수행능력 부진 등 학교적응의 어려움 ⑥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사노동 수행 등 가족기능의 어려움 ⑦ 관리와 보호 부재로 인한 비행 및 일탈의 접근 용이성의 어려움 ⑧ 신앙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종교적 회의, 신앙적 위기대처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David R. Miller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다.⁵⁵⁾ ① ‘나 혼자서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② ‘이 외로움이 얼마나 갈까?’ ③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④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⑤ ‘향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⑥ ‘자녀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⑦ ‘신앙적으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⑧ ‘교회에서 다시 온전한 신자로 용납 받을 수 있을까?’ ⑨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등으로서 이런 고민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보았다.

디아코니아 신앙공동체 네트워크 공동체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인식의 재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며, 애착대상으로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시켜주어야 하며, 가정예배를 통한 신앙정체성 함양과 가족응집력 향상을 기하고, 또래 동질집단 및 멘토링 관계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새옹지마’(塞翁之馬)를 인용하면서 절대적으로 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없으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미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역경을 변화시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소망을 갖는 재구성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⁵⁶⁾ 또한 자녀들이 자신에게 이런 일을 초래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신정론적 고민을 갖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허탈감이 죄책감을 자아내게 하고, 하나님과 부모를 대상으로 분노하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심각한 방해로 주게 된다.⁵⁷⁾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완전하지 못한 부모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에 투사, 대체하여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신앙은 갖지 못하거나 때로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은 바른 신앙이나 바른 하나님 상을 갖기 어렵다는 구조로서 좌절만을 안겨준다. 그러나 한부모로 인하여 텅 빈 듯 허전한 상태를 방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신앙지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여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⁵⁸⁾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형성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부모 그리고 자녀 간의 사랑, 신뢰, 친밀감을 형성한다면 그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자녀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⁵⁹⁾

예를 들면 디모데는 모자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라고 확고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행 16:1-2),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딤후 1:5),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롬 16:21, 고전 16:10),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빌 2:22),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사람(살전 3:2)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⁶⁰⁾ 또한 교회는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mentoring)을 통해 신앙과 삶의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는 셀(cell) 및 다양한 소그룹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지리라고 보지만 멘토링에 대한 적용은 어떤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⁶¹⁾

마. 다문화가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1) 다문화가정의 정의와 성서적인 이해

‘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뜻한다. 국제결혼가정(한국인 남성+이주여성, 한국인여성+이주남성),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면서 이주노동자 이외에 결혼이민자, 재중

56) 전요섭, 『세속화 인식의 전환을 위한 목회돌봄: 고난과 고통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구성 방안』(서울: 복음과 신학, 2005. 4), 164-190쪽.

57) Archibald D. Hart, Healing Adult Children of Divorce(Grand Rapids: Vine, 1991), 161-166.

58) Mary S. Anisworth, "Attachments Across the Life 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1/9 (1985): 792-812.

59) Myron S. Augsburg & Esther Augsburg, How to be a Christ Shaped Family(Wheaton: Victor, 1994), 19.

60) 전요섭,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목회상담의 방향: 한부모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방향을 중심으로』(성경과 신학, 65, 2013), 1-35쪽.

61) F. J. Foakes Jackson & Kirsopp Lake, (eds.)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New York: McMillan, 1922), 184. Cf. Herbert Lockyer, All the Men of the Bible, 성경연구 올시리즈(서울: 로고스, 1982), 512.

51)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제4판)』(경기: 공동체, 2011), 277쪽.

52) Mark A. Yarhouse & James N. Sells, Family Therapies, 전요섭 외 공역, 『기독교가족치료』(서울: CLC, 2010), 29.

53) ohn Patton & Brian H. Childs, Christian Marriage & Family, 장성식 역, 『기독교인의 결혼과 가족』(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3-6

54) 강연정, 『한부모가정의 위기대처를 위한 기독교상담의 과제』(서울: 신앙과 학문, 13/2, 2008, 8), 9-45쪽.

55) David R. Miller, Counseling Families after Divorce(Dallas: Word, 1994), 212-14

동포, 난민, 귀화자, 입양자, 국내출생 이주노동자 자녀, 새터민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시민권적 차원에서 이주민이라고도 할 수 있다.⁶²⁾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없이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라⁶³⁾고 말씀하셨으며, 특히 고용허가제 유학생 상용비자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8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한다. 이미 발 빠르게 국제사회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 버린 한국 사회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한국기독교의 새로운 비전으로의 장을 열기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⁶⁴⁾

(2) 다문화가정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상담은 외국인들의 언어로 하는 예배,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동법과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한국 문화 체험과 체육행사, 성경공부 등을 들 수 있다.⁶⁵⁾

안양의 ‘새중앙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적별로 중국 선교회, 중국동포 선교회, 몽골 선교회, 베트남 선교회, 인도네시아 선교회등 재한 외국인 선교회를 두어 복음 전파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받게 하고 디아코니아 영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본국으로 재 파송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실행하고 있다.⁶⁶⁾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로는 첫째, 나눔 사역의 일환인 의료 진료와 생일파티, 이미용사역 등이 있으며 둘째, 문화사역으로 스포츠 활동, 전통문화체험, 한국투어 등이 있다. 셋째, 교육사업에는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찬양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성경공부로서 새신자 교육과 제자훈련, 구역성경 공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헌신자를 위해 헌신자 워크샵, 헌신자 보수교육, 여섯째, 재한 외국인 위로 행사로 구정 및 명절 특별 행사, 야외예배 등을 두고 있고 일곱 번째로 영성 훈련과 연합 행사로 하계 수련회와 재한 몽골인 대회, 베트남 전도폭발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덟 번째, 기독교인으로서의 헌신의 사역인 세례식과 선교사파송, 헌신 예배 등이다.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하리교회의 맘스(Mom’s)완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집단 상담과 부부 상담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맘스 완주 결혼이민자 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치료를 위한 사회문화체험교실,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재봉틀 학교와 쿠키 교실 등의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완주군의 이주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한 방송 촬영과 노인들을 위한 점심 식사 봉사 등을 통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조명에 기여하였고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도, 미술 심리 치료,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들

62) 설동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서울: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5호 통권 325호 2006), 125쪽.

63) 성경전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64) 박찬식·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기독교산업사회 연구회 2006), 216쪽

65) 박준환, 『외국인근로자 선교 현황 고찰: 천안 외국인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17-22쪽.

65) 홍성환,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증가에 대한 지역교회의 역할 연구: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2011), 34-45쪽.

66) 홍성환,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증가에 대한 지역교회의 역할 연구: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2011), 34-45쪽.

진행함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였다.⁶⁷⁾

즉 다문화 디아코니아 신앙네트워크 공동체상담에는 복음 제시가 중요하다. 온전한 삶의 변화는 복음의 선포와 말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⁸⁾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 의료, 인권, 상담, 복지 등 모든 총체적인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교회 안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과 각종 가정 문제, 노동문제 등을 상담하고 의료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초청하여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등을 단기과정으로 교육하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세미나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 상담과정에 있어서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담자의 영적 성숙이 최종 목적임을 인식하며 기독교 상담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언어 교육, 이중문화 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들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적응 훈련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위탁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교 상담기관의 전화 및 컴퓨터 상담 개설, 전문인양성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및 상담을 포함한 사회적 시설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상담자의 안내자이자, 통역자의 역할 등을 보강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 의료, 인권, 상담, 복지 등 모든 총체적인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각종 가정 문제, 노동 문제 등을 상담하고 의료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다문화 전문 상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⁶⁹⁾

I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가족구조와 가치관에서 많은 변동으로 가족의 대한 인식의 변화와 불안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제시할 것을 법국가적으로 요구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기독교사회복지적인 고찰 즉 디아코니아 교회사회봉사활동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으로는 사회봉사의 정의와 사회봉사의 성경신학적 이해를 제시하였고, 가족/여성에 대한 보편적 여성사회복지실천의 고찰로는 교회에서 중년 일반 여성들의 디아코니아 활동과 가족/여성에 대한 선별적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고찰로는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피해여성,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접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67) 민경휘, 『하리교회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목회 패러다임 고찰』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1), 12-16쪽.

68)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1), 56-59쪽.

69) 최유진,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56-67쪽.

첫째,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의 고찰을 살펴보면 ①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실태, ②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기독교의 전문인재육성, ③ 디아코니아 통합적인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의 고찰을 살펴보면 성경공부를 통한 치유사역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게 선교적으로 접근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에게 도전하며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죄짓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목회자 인식 개선 및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디아코니아 모임에 참석하여 이들과 영적인 교류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셋째, 맞벌이 가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의 고찰을 살펴보면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의 성경적 부모교실프로그램, 마더와이즈 코리아의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영락교회의 유니게 부모교육 프로그램, 두란노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한부모 가족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의 고찰로는 목회상담과 따라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부모 그리고 자녀 간의 사랑, 신뢰,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의 고찰로는 외국인들의 언어로 하는 예배,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동법과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한국 문화 체험과 체육행사, 성경공부와 안양의 새중앙 교회의 외국인 선교회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나눔 사역의 일환인 의료 진료와 생일파티, 이미용사역, 문화사역, 교육사업, 새신자 교육과 제자훈련, 구역성경 공부와 헌신자 워크샵, 헌신자 보수교육, 재한 외국인 위로 행사, 영성 훈련과 연합 행사, 세례식과 선교사파송, 헌신 예배 등이다.

V.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강기연.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 사무직·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0.
- 강연정. “한부모가정의 위기대처를 위한 기독교상담의 과제.” 『신앙과 학문』 13/2호, 2008.
- 강철희 외. 『사회봉사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 김경신·김경란. “가정폭력 세대 전이가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2002.
- 김경진.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부부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0.
- 김경희. “크리스천 중년여성의 성숙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2.
- 김국환. 『신앙에 관한 편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김동배. “기독교 사회봉사의 비판적 고찰 : 그 한계성과 가능성.” 『연세사회복지연구』 제 1권, 1993.
- 김동배. 『기독교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05.
- 김만철. 『교회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2010.
- 김미례·노안영·오명자. “Adler의 생활양식이론의 관점에서 본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관심정도 및 활동수준과 주부생활스트레스의 관계,” 『상담학연구』 8(3), 2007.
- 김선희.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독교 상담 : 폴링(James N. Poling)의 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2009.
- 김수정. “기독교인의 자아존중감 및 부부관계만족도가 종교적 성숙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목회』 제31집, 2009.
- 김영근. “글쓰기 고백을 활용한 내적 치유 상담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2006.
- 김옥순. “디아코니아신학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연구,” 『실학과 실천』 Vol.42. No.- [2014].
- 김윤희. 『기독교 사회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쿰란출판사, 2011.
-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전략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2011.
-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제4판)』 경기: 공동체, 2011.

민경휘. “하리교회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목회 패러다임 고찰.”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2011.

박금자.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2002.

박노권. “중년여성의 위기와 신앙의 역할.” 『신학과 현장』 제21집, 2011.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박준환. “외국인근로자 선교 현황 고찰 : 천안 외국인교회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협성대학교, 2010.

박찬식·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기독교산업사회 연구회, 2006.

박희정. “기독교 유아부모교육의 실천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2014.

설동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5호, 통권 325호, 2006.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77.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9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오성춘. 『목회상담과 상담목회』 서울: 쿰란출판사, 2003.

우형천. “찬양을 통한 내적치유.”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호남신학대학교, 2003.

유영주 외.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2004.

윤성호.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과 과제.” 부산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학술대회, 『지역사회』 겨울호, 2008.

이경직. 『개혁주의생명신학과 목회 윤리』 서울: 생명과 말씀, 2012.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이상안. 『현대사회봉사론』 서울: 전영사, 2003.

이수정.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소명의식의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

이재서. “기독교의 이웃 사랑과 그 실천 신학적 의미.” 『신학지남』 제69권 1집(통권 제270호), 2002년 봄호.

이창호. “교회에서의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2007.

이충범. “성폭력 생존자의 치유와 인격회복을 위한 목회.” 『인격교육』 V.8. No.3, 2014.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성보연·김수완 공저.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 정책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전요섭.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목회상담의 방향:한부모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방향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호, 2013.

전요섭. “세속화 인식의 전환을 위한 목회돌봄: 고난과 고통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구성 방안.” 『복음과 신학』 38, 2005.

정정숙. 『성경속의 가정』 서울:베다니, 2004.

정진오. “중년기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가 부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2009.

조혜정. “기독교 중년 여성의 신앙성숙이 삶의 질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정보』 제32집, 2012.

최무열. “기독교인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장신논총』 부산장로회신학교 출판부, 2004.

최유진.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홍성환.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증가에 대한 지역교회의 역할 연구: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2011.

홍인중. “가정(아내)폭력과 목회자의 역할.” 『장신논단』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5, 1999.

황금봉.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봉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황주연.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07.

2. 외국서적

Archibald D. Hart, Healing Adult Children of Divorce Grand Rapids: Vine, 1991.

Arnd Hollweg: Diakonie und Caritas, In : Ferdinand Klostermann Hrsg., Praktische Theologie heute, München//Mainz, 1974.

Cox, H, The Secular City (Revised ed.), N.Y. : Macmillan. 1966.

Dan P, McAdams and Ed de St. Aubin,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Washin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8.

David R. Miller, Counseling Families after Divorce, Dallas: Word, 1994.

F. J. Foakes Jackson & Kirsopp Lake, (eds.)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New York:McMillan, 1922), 184. Cf. Herbert Lockyer, All the Men of the Bible, 성경연구 올시리즈, 서울: 로고스, 1982.

Holcomb, B. Not guilty!:The good news about working mothers. New York, NY. 1998.

- John, N. Collins, 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John Patton & Brian H. Childs, Christian Marriage & Family, 장성식 역, 『기독교인의 결혼과 가족』 .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K. H. Peschke, 김창훈 역, 『그리스도교 윤리학』 . 서울: 분도출판사, 1992.
- MacHaffie, Barbara J. 손승희 역, 『기독교 전통속의 여성』 .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95.
- Mark A. Yarhouse & James N. Sells, Family Therapies, 전요섭 외 공역, 『기독교 가족치료』 . 서울: CLC, 2010.
- Mary S. Anisworth, "Attachments Across the Life 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1/9, 1985.
- Myron S. Augsburger & Esther Augsburger, How to be a Christ Shaped Family, Wheaton: Victor, 1994.
- Paul Philippi. Christozentrische Diakonie. Stuttgart, 1975.
- Reinhard Turre, Diakonia, Neukirchener, 이삼열 역,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 Trost, J., "The concept of one parent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1(1), 1980.
- Ürgen Moltmann. Diakonie im Horizont des Reiches Gottes, Neukirchen 1989.
- Wesson, L. Relative income, power, perceived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career families(role shari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D. 1996.

“가족·여성 영역의 기독교사회봉사에 대한 실천적 고찰” 토론문

정혜원(배재대 실버보건학과)

1. 들어가는 말

한국 개신교 100여년의 역사동안 한국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한 발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한편 옆길로 가기도 하면서 발전하였다. 1970~1980년대의 교회의 급성장은 대형교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사람들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봉사 등)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었다, 하지만 급격한 교회성장에 비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저조하여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사회는 20세기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위험인 빈곤, 실직,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사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21세기로 진입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여성교육향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급증,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등 사회, 경제적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는 과거 여성들의 가족 안에서의 돌봄 기능을 약화시키는 신사회적 위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의해 맞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그리고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팽배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디아코니아 즉 기독교 사회복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발제자 또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동등하게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에 기초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교회가 가족/여성과 함께하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여 가족/여성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기독교 사회복지 관점으로 개입하여 교회가 진정한 예수제자 공동체로 다가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토론자도 발제자의 의도에 적극 동의하며 발제자의 논고에 맞춰 본인의 의견을 논하고자 한다.

1.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의 고찰

1) 디아코니아(기독교 사회봉사)의 정의와 성경신학적 이해

발제자는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를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돕는 행위 또는 섬기는 행위라 정의 내렸다. 이처럼 교회의 사회봉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며, 예수의 주된 가르침도 봉사(섬김)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디아코니아는 전통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봉사이다. 이웃에 대한 봉사, 즉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어인 diakonein(섬긴다)/ diakonia(섬김)/ diakonos(섬기는 사람)은 신약성서에서 섬기는 기능을 표시한다. 사도행전 6장 1절~7절을 살펴보면 섬김의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음식을 배푸는 일(diakonein, 행 6장2절)만이 아니라 말씀을 섬기는 일(diakonia logou, 행 6장4절)도 모두 디아코니아라고 하였다. 즉 디아코니아 실천 자체가 복음의 선포이다. 복음은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디아코니아 즉, 독거노인의 쓸쓸한 방,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맞벌이 가족의 어린 아이, 엄마 또는 아빠의 부재로 혼자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아동, 물설고 낫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롭고 답답한 결혼이주여성 등에 디아코니아 실천이 바로 복음 자체라 하겠다.

2. 가족/여성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1) 가족/여성에 대한 보편적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발제자는 가족/여성복지에 대한 보편적 고찰의 대상자를 모든 가족/여성대상자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중년 여성들이 교회에서 디아코니아(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얻는다고 하였다. 중년기 여성들이 겪는 삶의 공허감, 허탈감, 우울감 등이 교회활동을 통해 희석이 되고 가족간 부부간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교회와 이들 가족/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토론자는 가족/여성에 대한 보편적 디아코니아란 교회에 다니는 일반 여성이 교회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의 일반 가족/여성에 대해 행하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즉 일반 가족/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부모교육, 결혼 전 교육, 노인대학, 청소년 문화교실 등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교회에 다니든 안다니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가족/여성에 대한 선별적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봉사) 고찰

발제자는 가족/여성에 한 선별적 디아코니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그리고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성폭력 피해여성

발제자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겪는 불안감, 우울감, 수치심, 죄책감 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 중심의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영성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상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 치료,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등 총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여성 상담센터 설립이 요구된다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124개의 성폭력상담소가 있으며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3개밖에 없다. 이는 성폭력피해여성들의 상담과 치료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대다수의 상담소는 정부지원과 후원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교회 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상담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나. 가정폭력 피해여성

발제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또한 우울과 무기력을 보이며 자살충동까지 나타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해치는 일이기에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 목회자 인식 개선 및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차원의 영적인 교류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교회는 구역예배 혹은 속회, 목장이란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으며 여전도회 남전도회 등 성별간 모임도 하고 있다, 발제자의 의견처럼 이러한 다양한 모임을 활용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다. 맞벌이 가족

전체 가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맞벌이 가족은 교육수준이 높아진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되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맞벌이 가족은 과거 남성중심의 전통적 가족역할에서 새로운 역할구조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여 부부간 갈등과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발제자는 교회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매우 미시적이며 소극적인 서비스라 본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등에 관한 기존 교회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은 일반 가정/여성에 대한 디아코니아이며 맞벌이 가족을 위한 디아코니아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나 아동의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 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한 뜻으로 시작하였으나 전문성이 낮아 시설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아 목회자의 인식과 의지를 재확인하고 설립해야 한다.

라. 한부모 가족

과거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을 편부모 혹은 결손가족이라 칭하면서 일반가족과 별개의 가족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든 이혼가족이든 미혼모가족이든 이들 모두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임을 인지해야 한다. 다만 가족형태상 요구되는 서비스-외벌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 모 또는 부만 존재함으로 자녀의 동일시 대상의 부재 등에 발제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청소년 대상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마. 다문화 가족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3%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나 귀화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족이라 정의한다. 발제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디아코니아로 경제적 지원, 외국인들의 언어로 하는 예배, 외국인 노동자 상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하게 살펴봄에 이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도 이에 적극 찬성하나 혹여 개종을 조건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은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 나오는 말

발제자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가족/여성에 대한 디아코니아 즉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와 선별적 서비스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보편적 디아코니아는 교회안의 일반 가정/여성이 교회를 통해 행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의 일반 가족/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아코니아로 부부교육, 부모교육, 결혼 전 교육, 노인대학, 청소년 문화교실 등이라 하겠다. 즉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별적 디아코니아도 대상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그 지경을 넓혀야 한다. 이에 가정/여성 디아코니아를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더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회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 전반 사역과 연계를 맺고 있어야 하며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다른 교회가 한다고 혹은 정부지원이 있다고 부화뇌동하는 활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 디아코니아가 절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늘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급격히 변화하며 흔들리는 가정을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III. 참고문헌

1. 국내서적

홍영기. 『불신자들을 섬기는 교회-한국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연구』 교회성장연구소. 2008.

2. 인터넷 자료 및 기타

<http://blog.daum.net/naeson/5177465>

기독교한국신문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8>

여성가족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6

이준우,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전 변천과정과 성과 연구,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한국교회사업학회 201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54-55.

크리스천TV C채널뉴스, <http://blog.naver.com/gocch/140204423705>

“가족·여성 영역의 기독교사회봉사에 대한 실천적 고찰” 토론문

양혜원(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나라 가정은 안전하거나 견고하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 칠포·울산 아동학대 사건, 인천 학대아동 탈출 사건, 원영이 사건 등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등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실상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해자의 절대 다수는 부모로 2014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81.8%가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졌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혼인 건수는 30만 2800건이고 이혼 건수는 10만 9200건으로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1/3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 폭력률이 4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한 신체적 폭력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발생률은 4.9%인 반면, 영국이나 일본은 3%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외국에 비해서 더 높은 편이다(여성가족부, 2010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지속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강남역 화장실 성폭력 사건,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 심각한 성폭력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 1만 1757건에서 2014년에는 2만 9863건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캄보디아나 네팔보다 낮은 115위로 조사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은 양성평등 지수는 0.651을 기록해서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카타르(122위), 사우디아라비아(134위), 이란(141위) 등 대부분 중동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다.

가정은 사회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해 성립된 제도이며,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종속되는 평등한 관계로 지으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을 이룰지라도”(창2:24),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라는 말씀은 가정의 출발과 남녀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정정숙, 2006). 가정은 인간의 최초의 문제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의 존재론적 목적이며 본질이다(유장춘, 1998). 또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여성에게 남성을 후원하고 돕는 역할을 부여하신 것인데, 여기서 돕는 배필의 의미는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에게서 자아실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정정숙, 2006). 이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코 남성중심이나 가부장적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Stott, 1985). 안타깝게도 이 구절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우월 또는 남성중심의 사상을 합리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온 경향이 있으나, 성경은 오히려 이를 통하여 부부의 평등성을 보장한다. 남자와 여자가 1대 1로 동등하게 결합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으로 일부일처제의 가정윤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유장춘, 1998).

발표자께서는 가족과 여성에 대한 기독교사회봉사에 대해서 관련된 이슈들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특히 선별적 복지에 있어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맞벌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족과 여성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총망라하여 고찰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여성 영역에서 기독교사회봉사가 보다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과 여성에 대한 기독교사회봉사의 역할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하여 볼 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발표자께서는 주로 사회봉사의 실천 주체, 즉 참여자 측면에서 여성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중년여성의 교회 중심 사회봉사활동이 여성과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나 교회나 기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가족단위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특히 가족단위 봉사활동은 기독교인들의 가족관계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기독교사회봉사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이러한 가정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기독교인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가족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단위이고, 대다수 심각한 사회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인 점을 감안할 때,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중요한 사회적 기여가 될 것이다. 가족과 여성에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할 때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과 같은 ‘교육’이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운동이나 여성 인권 함양 및 양성평등 강화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 중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 등은 대다수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단체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단과 교회의 규모, 조직, 지역사회 밀착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교회는 가족과 여성의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적합한 사회운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가족·여성 관련 교육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필요성, 이것이 기독교인의 책무라는 인식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가족·여성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독교사회봉사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며, 그 출발점은 목회자와 중직자의

인식 변화라고 하겠다.

둘째, 가족·여성 영역의 기독교사회봉사가 발전되기 위하여 주목하고 노력해야 할 바는 전문성에 대한 것이다. 근대 사회복지제도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복지사는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켜온 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사회봉사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은 전문 인력 고용,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양혜원·김희수, 2011). 일례로 목회자나 목회자 사모가 운영한다거나 특정 교회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교회 또는 기독교계로 분류될 수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기관이 적지 않은데, 전문성 차원에서 수월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 사회복지와 차별화되는 지식이나 기술 기반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 일종의 사회문제로 불거진 사례도 있다. 전국의 3,000여개 지역아동센터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가족·여성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중 절반 이상을 교회나 기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형교회 가정부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열악한 환경과 저급한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손병덕, 2010). 따라서 기독교사회봉사의 전 영역에서 전문성 고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가족·여성 영역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은 일반적인 자원봉사나 구제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은 모두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사회복지와 차별화되는 기독교사회복지, 즉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문의 장 및 실천의 장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가족과 여성에 대한 기독교사회봉사가 확대·발전되기 위하여 필요한 또 다른 노력은 연계 및 협력의 강화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전문성 고양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이 영역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을 개 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교회나 소규모 기독교기관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나 기독교 기관들 간의 연계, 교회·기독교기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들 간의 연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족·여성 영역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단 차원의 체계적인 조직화나 교단 소속 교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교회나 기독교기관들이 연계하여 연합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바와 같은 기독교 성폭력·가정폭력 기관들이나 지역아동센터들이 조직화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대형교회가 중소형 교회들을 대상으로 재정이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등 그 밖에도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가족·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들 중 기독교세계관에 부합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회나 기독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체적인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교회의 경우에도 인력이나 공간 등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손병덕 (2010). “기독교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독교와 사회봉사총론』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양혜원·김희수 (2011).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현황 및 발전적 역할 모색.” 『신앙과 학문』 16(3):10-30.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유장춘 (1998). “가정폭력과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목회적 접근.” 『복음과 실천』 22:367-399.
- 정정숙 (2006). 『인간발달과 상담』. 베다니: 서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통계청 (2015). 『2015년 혼인·이혼 통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정책 레시피』
- 동아일보 (2015. 11. 19). “한국 양성평등 수준 115위… 캄보디아 네팔보다 뒤쳐 아직 ‘조선시대?’”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77334/2>
- J. Stott (1985). *Involvement: Social and Sexual Relationships in the Modern World (A Crucial Questions Book)*. F. H. Revell Co.

아버지학교와 여성(실천사례)

이해달(두란노 아버지학교 상임이사)

아버지학교에서

베트남 아내와 결혼하여 살고 있는 형제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수료식에 참석했다. 전체 나눔 시간에 진행자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아버지학교에서 형제님은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머리를 극적이며 ‘저는 변한 것이 없는데요...’

베트남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에는 아이가 칭얼댄다고 화를 내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했는데 아버지학교를 다니면서는 내가 애를 볼 테니 밥을 먹으라고 해요. 베트남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렁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숙제를 꼭 해보라는 과제를 안고 그동안 아버지와 살가운 말을 나눠보지 못한 40대 지원자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래” “진지는 드셨어요.” “그래” “날이 무척 덥죠.” “그래 그런데 왜 전화했냐?” 순간 말문이 막힌 아들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열른 끊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답니다. 너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안절부절못하게 만들었냐? 아들 녀석이 분명히 사업이 망했든, 암에 걸렸든 큰 일이 있는 모양인데 당신이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13년차인 형제가 아내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위기에 있다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아버지학교에 왔습니다. 첫 주 아버지의 영향력을 배우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살 때 어머니의 가출, 새 어머니, 그리고 이복동생들, 할머니 집에서 크면서 나도 쫓겨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밴 지독스런 눈치...자신도 큰 소리치고 싶고, 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를 원했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시절 한방에서 식구들이 복닥거리며 살 때에 초등학교도 입

학하기 전 자신에게 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내 방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어떻게 자야하나? 너 무 무서운데....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무서우니 엄마, 아빠 방에서 재워달라고 사정했고, 어느 날은 배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응석을 부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개를 옆구리에 끼고 부모님 방 앞에 서서 무슨 핑계를 대야하나를 고민할 때 엄마를 야단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7살인데도 밤마다 기어오게 만들어” 이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절대로 부모님 방을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가면 엄마가 야단맞는구나...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은 대학을 졸업하는 해 서둘러 결혼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풀 보기 싫은 아빠를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에게 아내를 내가 큰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 하면 두 마디로 응수하는 독한 여자라고 느껴져 위로가 되지 못했고, 아내에게 남편은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 전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란 생각에 잘못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0이 넘은 남편이 시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고양이 피하려 결혼했는데 호랑이 굴속에 들어왔구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숙제를 하려고 자신의 서재에서 밤새 흐느껴 우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내의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부터라도 남편이 되어주겠노라고, 서로 보듬어 주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혼하려 했던 가정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때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와 여성

남편을 아버지학교에 보냈는데 왜 아내도 함께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까?

여성이 보는 제3자적 모습이 아니라 남편을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태어나서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둘째, 결혼해서 만나는 시아버지

셋째, 남편하고 살다보니 애 아버지.

대부분의 여성은 이렇게 3명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해도 나를 낳아주신 한명의 아버지와는 꼭 만나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와 관계가 결혼해서 시 아버지와 관계, 애 아버지와 관계와 연결됩니다. 아버지학교에서 남편이 배우는 영향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남자이고 내 남편이 남자이고, 내 아들도 아버지로 살아가야할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남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학교를 바라볼 때 자기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가 아버지와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학교의 태동

아버지학교는 1995년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형편은 낡아지지만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가정의 문제이고 그 중심에 가장인 아버지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고
2.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3. 잘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잡고
4. 아버지의 부재의 가정에 아버지를 돌려보내자는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한국에 몰아닥친 경제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사태(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서 가정에 가치를 소중히 여긴 가장은 가족이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에 찌들려 가정의 가치를 소홀히 했던 수많은 아버지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학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아버지학교인가?

아버지가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서며

사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아버지학교는 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남성회복운동입니다.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방주에 탄 사람들, 곧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또 직장에 취업하여 직무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지만 자녀를 낳으면 누구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치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버지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학교 비전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운동을 펼쳐나간다.

아버지학교 현황

21년이 된 아버지학교는 2016년 8월 현재 6250회의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어 32만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아버지학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기업체, 관공소, 교도소, 군부대, 학교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아버지학교가 현지인들에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는 국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만국 공통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65개국에서 개설이 되었고, 17개국에서는 현지인 아버지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학교의 교육내용

1주차 아버지의 영향력

첫날은 아버지와 관계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향력 배우게 되는데 강의를 듣고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눔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의 삶을 들으며 공동체의식을 갖고, 또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숙제를 내어줍니다. (나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용서와 회복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아버지와 관계가 막혀있으면 실제로 자신이 좋은 아버지의 위치로 갈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딸의 위치에서

내가 시 아버지와 관계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꼭 시아버지와 관계에만 있을 것일까? 아닙니다. 친정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아버지와 관계를 다룹니다. 때론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 아버지가 보기 싫어 자원입대 했던 사람, 아버지 때문에 범죄를 하고 교도소에 갇던 사람. 공동적인 문제는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은 아버지와 살면서 본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화내시는 아버지, 술주정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와 싸우시는 아버지, 이런 모습을 보며 배웠을 뿐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주고, 긍정적인 것은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 주는 것이 아버지학교 첫 주 영향력입니다

2주차 아버지의 남성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과장, 부장, 사장이고 교회이면 집사이고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한 가정의 남편이고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남성다운 남성인가? 진정한 남성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남성시간에는 남성성의 4가지요소를 배웁니다.

어진 왕, 부드러운 전사, 참된 스승, 다정한 친구.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비로소 남성이 되고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아버지가 됩니다. 남성성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문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체면, 일, 음주, 레저, 폭력, 섹스, 도박, 사이버' 잘못된 문화가 가문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내 형편과 맞지 않는 차를 사고, 집을 갖고, 선물을 보내는 일은 없었는지.. 남에게는 잘 하면서도 정작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는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일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손님 접대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음주문화에 빠지고 그 끝이 잘못된 성문화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과연 어떤 남성문화에 속해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회복의 길을 찾아봅니다.

아버지와 관계는 용서를 통해 회복하는데 남성성의 회복은 자신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직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회복해야 하며, 삶의 순결, 언어의 순결, 성적인 순결을 회복하고 아버지로서 지도력을 회복하고, 사랑의 회복해야 한다고 배우게 됩니다.

3주차 아버지의 사명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살펴보고, 남성성을 바로 정립하고 그다음은 현실에 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위치를 찾아가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완수해야하는 것 사명이고, 나 아니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하는 회사일도 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고, 교회의 봉사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만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 권위 있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표현하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그리고 성장 성숙시키는 사랑을 하십시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명은 자녀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어디인가.

자녀의 지표가 되며, 자녀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고, 미래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보장- 내가 아이들하고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결혼하고 30년~50년, 우리의 인생이 80세, 아버지로 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불리 우는 호칭입니다.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인데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예수그리스도입니다.

4주차 아버지의 영성

그래서 영성강의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영적인 네 가지 권세가 주셨습니다.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훈육하고, 신앙(삶)을 전수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잘난 아버지에게는 주고, 못난 아버지에게는 안준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영성 있는 아버지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영성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원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때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주차 아버지와 가정

마지막 주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초대됩니다. 아버지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숙제,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아버지와 가정이란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첫째가 가정에 헌신, 즉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며

넷째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많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영적인 헌신 내지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식으로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통하여, 그동안 군림하며 살아왔던 아버지들이 '섬김의 삶을 살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 여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아내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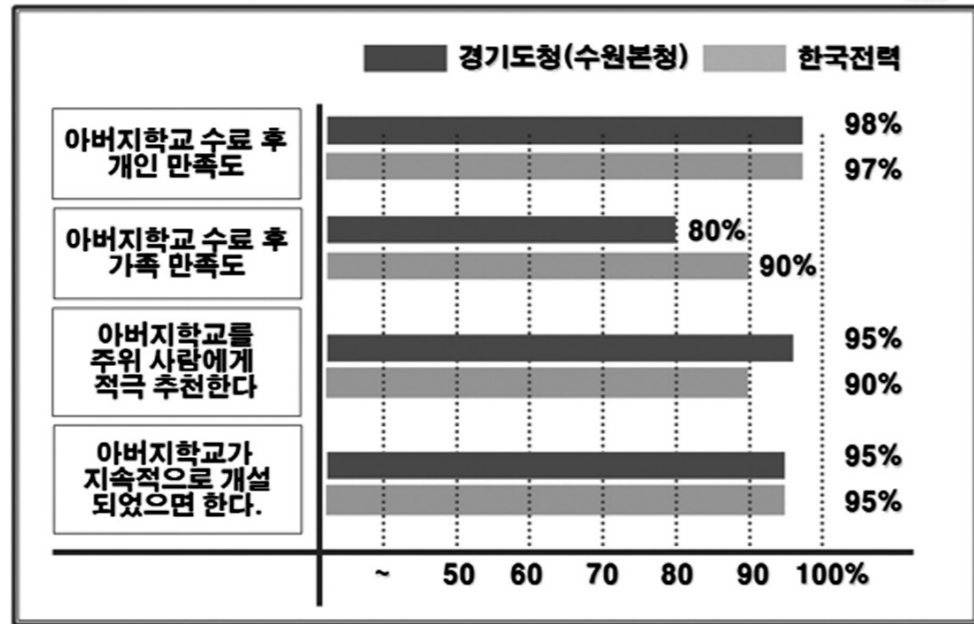
지원자 아버지들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정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지 않고서는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문제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은 더 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결과에 관한 주요연구

연구자	주제	대상	결과
박차실 (2000)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의 아버지 역할 증진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수료자 380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역할과 자존감을 증진시켜 가족 간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침
박차실 (2000)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관악 2기와 남부 4기 수료생 87명을 대상으로 수료 전과 후를 비교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 되기', '가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기'에 있어 수료 후 통계적으로 증진된 차이를 나타냄
조용호 (2002)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부부결혼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증진에 미치는 영향	전북일원 지역에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훈련받은 17명의 실험집단과 훈련을 받지 않은 17명의 통제집단의 실험 전과 후를 비교	임원선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우희 (2005)	아버지교육이 가족기능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원 12기 참석자 중 8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사례 연구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친밀감과 양육방식, 가족 간의 갈등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
최영태 (2006)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아버지 역할 인식변화에 주는 영향	분당 15기 수료생 92명을 교차분석으로 참여 전과 후를 비교	아버지 역할에 대한 생각의 변화 여부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성격이 형성되었고,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미애, 전해정 (2008)	아버지학교 수료자와 비수료자의 생성감과 생활 만족도 모형 비교 연구	아버지학교 수료자 159명과 비수료자 120명을 비교	생성감(generativity)과 생활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부부관계, 본인과 자녀관계, 비공식적 지원을 독립 변수로 보고 분석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음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효과와 그 지속성에 대한 논리모형 중심의 분석 중에서 (민동권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기업과 관공서에서의 아버지학교에 대한 반응



교정시설에서의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성과 및 발전에 관하여 (2013년 아버지학교 학술대회에서 김재준 사법연수원 교수의 발표)

1)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함을 평균적으로 가지지 못했던 수용자들이 이 과정을 수료한 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함을 나타낸 것은 상당히 좋은 징표로 보인다.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교육전	113	3.20	1.045	0.98
교육후	107	3.55	1.002	0.97

P=0.013

2)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놀라운 결과로는 가족과의 관계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 교육전	113	3.42	1.215	.114
교육후	107	3.55	1.223	.118

P=0.411

3)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문항은 개선된 것으로 결과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평균적으로 모두가 처음부터 가정의 중요성은 인식한다고 답을 했기 때문이다. 즉 이 교육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수용자들도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전	112	4.58	.779	.074
교육후	106	4.80	.524	.051

P=0.014

4) 단점을 고치려 노력한다.

교육 후에도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균이 높았으므로, 이 결과에 따르면 수용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단점은 알고 고치려는 의지는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증가된 것은 아쉽지만 보이지 않는다.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단점을 고치려 노력한다. 교육전	112	4.16	.906	.086
교육후	106	4.28	.700	.068

P=0.268

5)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문항 3과 비슷한 질문인데 의외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조사결과는 어쩌면 수용자들이 계속되는 질문에 약간 고민 없이 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기 전에도 가족에 대한 생각은 원래적으로 평균이 높았으므로 이는 의미가 없다.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전	113	4.31	1.027	.097
교육후	104	4.52	.805	.078

P=0.087

6)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의외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던 수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은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7) 지인들과의 관계가 좋다.

이 문항은 사실 충격적이었다. 수용자들은 지인과 관계가 좋지 않음이 평균이었는데 이 결과로 인해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 변화는 전혀 없었다. 즉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집단통계량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교육전	112	3.55	1.244	.118
교육후	106	3.91	1.103	.107

P=0.028

집단통계량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지인들과의 관계가 좋다.				
교육전	113	3.73	.938	.088
교육후	107	3.81	.892	.086

P=0.480

8)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다.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수 후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기에 이 과정을 유지한다면 교정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가 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교육과 관련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집단통계량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다.				
교육전	112	3.84	.906	.086
교육후	107	4.13	.848	.082

P=0.015

집단통계량

교육전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가 있다.				
교육전	113	4.22	.874	.082
교육후	109	4.34	.808	.077

P=0.297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아버지학교 5주 동안 얼마나 사람이 변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학교는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아버지학교의 숙제를 통하여 편지도 쓰고,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쓰고, 허깅과 축복기도를 하면서 씩스러운 과제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아내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하더라. 나도 당신의 축복을 받고싶다” 이런 격려와 칭찬이 남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남성들은 관계에 서툽니다. 부모님과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내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빠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남편에게는 아이들의 상태와 마음을 알게 하여 최종결정은 아빠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편의 권위가 너무나 무너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 많은 가정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아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잘한 일은 아내가 결정할 지라도,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몫으로 남겨놓고 자녀들에게도 최종 결정권자가 아빠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 집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결론

교회의 작은 세포는 가정입니다.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건전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며, 치유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터전입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들이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여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짐으로서 아내와 함께 가정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학교는 삶속에서의 실천을 통한 예방사역이고, 치유사역이며, 생활전도 사역이기도 합니다.

「아버지학교와 여성(실천사례)」 토론문

전미애(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버지학교를 여성과 관련하여 조명해보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1년 동안 32만 명의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아버지학교를 살펴보는 작업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학술대회에서 아버지학교를 실천사례 발표자로 초청해주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으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버지학교는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여성에게 새로운 부부관계, 또는 새로운 부녀관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과묵하고 무뎠던 남편이나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아내와 자녀를 돌보고 지킬 뿐 아니라, 가정의 중심을 잡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서 아내와 자녀들은 행복감과 안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직장이나 학교, 사회나 가정에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학교는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 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변화의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발표자이신 이해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학교는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일중독과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갖고 있던 남편이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후, 집 밖으로 향하던 남편의 관심과 발길이 저와 아이들에게로 돌아오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아버지학교 봉사를 통해 본인의 급한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조금씩 키워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었기에 자녀들의 학업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불만을 분출하던 횡수와 빈도, 강도가 낮아지면서 자기조절 능력이 커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얼굴이 벌겍게 붉

어지면서도 화를 억누르고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돌아오던 남편의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순간은 넘기고 진정된 상태에서 아이들과 조용히 마주앉아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아버지학교의 공로가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의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아내인 저와 아이들이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계셨던 양가 부모님들과 주변 분들도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아버지학교는 여성에게,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정들이 건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고, 실추된 아버지들의 권위를 회복하며, 아버지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해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학교의 혜택을 누렸던 여성들이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고, 피스메이커로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동역자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학교를 선봉에서 섬기시는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학교의 나이가 21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정의 모습이나 상황은 지금까지의 사회와 가정의 모습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사님께서 앞으로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아버지학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아버지들에게 올바른 아버지 상을 갖게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귀한 사역을 이끄시는 아버지학교의 상임이사님의 발표와 더불어 아버지학교를 여성의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디아코니아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학교와 여성(실천사례)」 토론문

김희수(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들어가는 말

본 발표 원고 및 토론문 작성을 위해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출발과 지금까지의 발전과정, 교육 내용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버지학교가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을 바로 세우는데 미친 영향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학교에 대한 토론자의 턱없이 부족한 지식과 이해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버지학교의 긍정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짧은 생각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다.

II. 아버지학교의 성과

아버지학교의 성과 측면을 보면, 우선 양적 성장을 들 수 있다. 1995년 시작되어 2016년 현재까지 21년의 세월을 지속해왔으며, 6250회의 개설, 320,000명의 수료자, 국내 뿐 아니라 국외 65개국에서의 진행 등과 같은 수치가 보여주는 확장과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 뿐 아니라 기업체, 관공서, 교도소, 군부대, 학교 등 다양한 장면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함으로써, 발표 원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변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세우고 가족,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아버지학교가 기여한 바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들이라 하겠다.

두 번째는 발표의 모두에서 소개된 사례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버지학교를 통해 변화한 아버지 개인

과 그가 속한 각 가족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라는 성과이다. 소개된 내용 각각은 320,000명의 수료자들 가운데 한명에 불과하지만, 개인 삶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한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들 각각은 아버지학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으며, 그 변화는 다시 가족 전체, 가족 구성원 각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5주의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 간 관계, 가족 체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아버지 학교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는 형태의 접근이 아닌, 사회운동으로 만들어 가는 기획에서 이루어졌다.⁷²⁾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개체 하나의 변화가 그 개체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개체의 변화와 더불어 그 개체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변화한다면 변화의 속도와 양, 즉 시너지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버지학교가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나 가족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사회운동 차원의 접근이 주효했다고 보인다.

III. 아버지학교의 발전적 전환 모색

한편, 앞서 정리한 성과들 속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아버지학교가 발전적 전환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아버지학교의 성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확인 작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물론 발표 원고에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는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학교를 통한 효과성과 효과성의 지속에 대한 보다 다각적 차원의 검증, 아버지학교의 지속 및 성장 요인에 대한 분석 등 양적 및 질적 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결과물의 생산은 아버지학교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실무자나 실천가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학계 연구자들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성과 입증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선의 환류과정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러한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 과정이 아버지학교의 발전적 전환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아버지학교에서 상정하고 있는 아버지상, 아버지의 역할, 가족의 기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안하는 바이다. 오늘날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그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 가족의 기능도 함께 달라져 왔다. 발표 원고에서도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곳’ ‘아버지학교는 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남성회복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어떤 기반 위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가, 아버지학교에서 지향하는 남성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정도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고 싶다. 특히 ‘아버지학교와 여성’이라는 발표 원고의 제목은 과연 현재 아버지학교가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바람직한 아버지상, 아버지의 역

72) 이진희, “개신교의 ‘좋은 아빠 되기’ 운동 :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경우” 『종교와 사회』 1(1), 2010. 227쪽

할, 가족의 기능을 상정하고 있는지,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내’라고 하는 본문 내용에서 과연 가족 내 아내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한 비판적 검토는 진일보한 방향성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V. 나오는 말

발표원고 결론에서 ‘아버지학교는 삶 속에서의 실천을 통한 예방사역이고, 치유사역이며, 생활전도 사역’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문구가 시사 하듯이,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을 살펴볼 때 아버지의 삶과 개별 가정의 삶의 영역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것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복음을 통한 영적 변화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 아버지학교가 지금까지 유지, 확대,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쪼록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향후 아버지학교의 발전적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 참고문헌

- 민동권, 유한나.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효과와 그 지속성에 대한 논리 모형 중심의 분석”. 『로고스 경영연구』. 8(2). 2010.
- 이숙진. “최근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착한’ 가부장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2. 2012.
- 이진희. “개신교의 ‘좋은 아빠 되기’ 운동 -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경우”. 『종교와 사회』. 1(1). 2010.
- 전미애·전혜정. “아버지학교 수료자와 비수료자의 생성감(Generativity)과 생활 만족도 모형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련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0.

CAUSE

because you are good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